

침몰 유조선 기름 22년만에 제거

국토해양부, 벙커C유 1900kl 유출사고... 2년간 잔존유 전량 회수

포항 앞바다에 침몰된 유조선에 남아있던 기름이 22년만에 제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 포항시 대보면 동쪽 3.5마일 해상에 침몰된 <경신호>의 잔존유를 2010부터 2년 간 전량 회수기로 결정했다.

995톤급 유조선 <경신호>는 1988년 2월24일 울산 온산항에서 벙커C유 2560kl를 싣고 묵호항으로 가던 중 기상 악화로 좌초되면서 기름 1900kl가 바다로 유출돼 영일만 일대 어장 170여개소가 황폐화되고 경주에서 울진까지 42km에 걸친 동해안 청정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되는 재앙이 발생했다.

<경신호>는 현재 수심 100여m 해저에 선체 선미부가 들려진 채 선수부가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상태로 잔존유 660kl 중에 374kl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에 조사를 맡긴 결과 부식상태를 고려해 선체를 인양하는 것보다 잔존유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4년 무인잠수정이 선체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기름 제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개발장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연기됐다.

정부는 기름 제거작업에 총 25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2010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여년 전 <경신호>가 가라앉았을 때는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지만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더욱이 기름이 계속 새어나오는 등 유출 우려가 커져 2100년부터 기름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16>